교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 大 濟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홈페이지:www.kyungnam.or.kr
인 쇄 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el:(02)783-0071~2, FAX:(02)783-0073

모교 60주년 해… "영광 위해 다시 뛰자"

동기회·직능회·지역회 협력 강화

3월 8일 定總 회장 선출

'젊은 동창회' 비전 구축

2002년 본부운영방향

모교 개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본부동창회는 새 집행부 출범을 통한 전열강화 및 조직활성화 촉진과 '젊은 동창회'를 지향하는 비전 제시, 늘 반갑게 만나는 용마가족, 각종 행사를 통한 역량결집, 각 동기회·직능회·지역회 간 협력 강화, 모교 60년사 발간 준비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기로 했다.

조대제 본부동창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최근 본부 사무국 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주재, 2002년 동창회 운영방향을 이 같이 확정했다.

'2002년 동창회 운영방향'에 따르면, 본부는 오는 3월 8일 제39차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뽑아 조직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젊은 동창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들로부터 수렴해 방향을 확정하고, 모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용마가족의 역량결집의 바로미터인 '용마의 밤' 축제를 비롯한 기별대항야구·등산·테니스·낚시·바둑·골프대회와 홈커밍데이행사 등 기존의 빅 이벤트들을 알차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임원단 회의와 본부 이사회, 용마장학회 이사회 등을 적절하게 개최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장학회 기금운용의 애로점을 타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리고 총무단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성원하며 이 조직이 동창회 발전을 도모하는 전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또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동문을 널리 발굴, 용마대상 등을 수여하고, 모교 지원사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 늘 반갑게 만나는 용마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행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가족동반 행사 주력
유대 촉진 이벤트 개발
장학회 운영 내실화
효율적 지원책 제고
총무단 회의 활성화
역량결집 전위대로

재경동창회 신년회 대성황

남홍우 동문(7회)등 11명에 '자랑스러운 용마상' 수여

"다시 뛰는 용마!"

올해 슬로건을 이 같이 내세운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2002년 신년회를 개최, 힘차게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사진).

이날 '자랑스러운 용마상'은 남홍우(7회·국제교류증진협회장)·이창범(7회·전 스위스대사)·김뇌명(15회·기아자동차 사장)·김판규(16회·육군참모총장)·이긍희(18회·문화방송 전 무이사)·임경록(18회·연합통신 이사대우 출판국장)·양승태(20회·서울지법 북부지원장)·서병문(21회·한국콘텐츠진흥원장)·신동규(23회·금융정보분석원장)·강수명(25회·육군준장)·승효상 동문(25회·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이 영예를 안았다.

또 재경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규만 직전회장(12회)은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이상택 회장 사비로 제작)를 받았다.

이상택 재경회장(13회·효산의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가 성황을 이룰 수 있게끔 성원해 준 역대 회장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2002년은 개교 60주년 해이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다시 뛰는 용마'가 되자"고 말했다.

이규만 직전회장 공로패
"영예·자긍심 드높이자"
전국 250여 동문 축배

박양조 사무국장(19회)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올해에도 전남 장흥에서 올라온 최형식 동문(2회)을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회장인사·본부동창회장 격려사·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경에서는 문택상(4회) 박영식(7회) 김경희(9회) 김성규(11회) 이규만 고문(12회)과 윤승홍(14회) 홍용찬(16회) 최낙준(26회) 남택희(28회) 추규환(32회) 강동주(33회) 부회장 등이, 본부동창회에서는 조대제 회장(7회) 박희태 부회장(11회·국회의원)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이 참석했다.

또 본부부회장인 나오연(6회) 류흥수(11회) 권철현 동문(19회·이상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신년회는 송두호 본부고문의 선창에 따른 축배에 이어 벌어진 만찬을 통해 덕담과 정담을 나눈 후 최형식 동문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오후 9시 산회했다.

17산악회 500회 등산기념 행사

일시 : 2002년 3월 10일(일요일)
장소 : 1차 행사 - 오전 10시 구덕산 산정입구
2차 행사 - 오후 6시 범내골 제일뷔페 (제일생명빌딩 23층)

< 주관 >
제17회 동기회장
정해전

고문
박인사 이범열 하영수

17 산악회 회장
이건우

부회장
김지창 신 종

행사준비위원장
하영수

총무
신정아 장정용

감사
김창운

행사위원
박도원 박신도 박영두 서재홍
성윤환 안정의

산행대장
김무부 박영일 이성흠 정해표
장휘행

회원

강우훈	김길호	김대성	김대희
김동수	김백수	김성오	김영우
김정수	김종대	김주영	김태호
남일웅	박가식	박재구	박청홍
박홍식	서정승	송유근	송인문
양성일	여성열	오태식	우기남
윤성욱	이방소	이우기	이정보
이종길	이종혁	임병화	전순경
정량부	정형근	조용운	조증언
천윤광	최성호	최세욱	현태일
황수길			

신년사

조 대 제
제 7 회
본부동창회 회장

재도약 위한 대변신을

용마가족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동창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지난날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으로 남은 일들을 반성하여 새로운 한 해 동안 성실을 다해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창회 회장으로서 사명감을 통감한 나머지 우리 동창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동창회 그리고 전국의 다른 학교 동창회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정립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교 개교 60주년의 해입니다. 시련과 좌절, 도약과 영광으로 점철된 역사를 어느 때보다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모교 60년사'를 발간키로 하고 기획·자료수집·편집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재학생과 용마가족이 함께 뜻을 누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 간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유대감을 확산시키고 '젊은 동창회' 지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송년축제인 '용마의 밤' 행사를 비롯해 기별야구·등산·바둑·테니스·골프·낚시대회와 홈커밍데이행사 등 기존의 빅 이벤트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조직활성화와 용마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촉진, 통합력을 더욱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동창회와 용마장학회의 견실한 운영으로 괄목할 만한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은행 금리인하에 따른 장학회 운영의 위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강구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용마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교 60주년의 해가 솟은 2002년을 제2의 도약기로 삼아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여 동창회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고 자긍심을 축적한 희망봉을 세우기 위해 창학(創學) 이념과 봉사정신을 선양해 나가고, 찬란한 영예를 자랑하며 감격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먼저 열린 시각과 함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타임으로 지평을 열어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자기편의주의에 얽매이면 지식기반을 요구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도전력과 질서확립, 우애넘치는 협력화 구축 등으로 공고한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날들과 보람들이 모여 동문 개개인의 역사가 되고 동창회의 전통이 됩니다. 튼튼한 뿌리를 뻗쳐 깊고 그윽한 향기를 피우는 들꽃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확산시키는 민들레 홀씨처럼 미래를 예비합시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컵대회·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우리 용마가족들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을 보일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용마가족 여러분. 올해 임오년에도 날고 뛰는 용마와 같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예산 1억3천만원 확정

본부용마장학회 이사회 승인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점 대어초밥에서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조대제 이사장(7회·본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먼저 2001년 용마장학회 결산보고(회기 1.1~12.31)를 통해 수입부문 1억2천3백89만4천3백7원(이자수입금 9천5백41만5천5백50원 등)으로 모교 장학금과 야구부 지원비 등에 1억1천8백25만6천8백30원을 지출하고 5백63만7천4백77원을 이월(은행예금)시킨 데 대해 심의, 이를 승인했다.

이어 이사회는 동창회 일반회계 결산보고(1.1~12.31)를 통해 수입부문 2억3천4백1만4천6백54원(동기회 출연금·후원보조금·이자수입금 등)으로 모교 야구부의 각종 용구 구입에 필요한 지원금과 모교 교직원 진학지도 연구비 등에 8천4백39만5천7백원을 지출하고 1억4천9백61만8천9백54원을 이월(은행예금 등) 시킨 데 대해 이를 심의, 승인했다.

앞서 감사의견에 따르면 장학회는 은행 금리의 급격한 인하 때문에 최근 수입재원의 축소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모교야구부 지원금 긴축 등을 통해 내핍을 강행해 왔다.

한편 이사회는 2002년 용마장학회 예산안(규모 8천3백76만5백 20원)과 2002년 동창회 일반회계 예산안(규모 4천8백만원)을 각각 심의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논의했다.

김정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이춘우 총무 사회로 진행, △부회장·감사 선임 및 고문 추대안 △정기총회 일정(2월 20일) △등산회 발족(회장 김선율·1월 27일 구덕산서 창립 기념 산행) 등 주요의제를 승인했다.

제9회 바둑대회 성황
유금열 '왕중왕' 등극

제9회 기우회는 지난 12월 28~29일 이틀간 동기회 사무실(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122-27)에서 회장배쟁탈 '2001바둑대회'를 열어 유금열 동문이 '왕중왕'에 올랐다. 이날 B조에서 우승한 유동문은 A조 우승 차진한·준우승 송성득 동문과 B조 준우승 최현오 동문 등과 결승 리그전을 벌여 영광을 안았다.

바둑대회에 이어 참석 동문 40여 명은 '박가네 한우곰탕집(범내골)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왕중왕'에 오른 유 동문이 금일봉을 쾌척했고, 이순경 동문이 사슴녹용을 상품으로 내놓았으며, 장병국 동문이 3차 뒤풀이 스폰서가 됐다.

부인 동반 100여명
제21회, 화합한마당

제21회동기회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6시30분 호텔롯데부산 에메랄드룸에서 부인동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거돈 회장 주재로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잔치에는 노래·장기자랑과 행운상 추첨 등으로 화목을 다졌다.

정기총회 2월 20일
제37회, 이사회서 승인

제37회동기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14층 골든뷔페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현안문제를

제16회 졸업40주년 '홈커밍' 오는 4월 20~21일 개최 확정

준비위원장 뽑아 전권 위임… 대대적 홍보 돌입

제16회동기회 졸업 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 일정이 내년 4월 20~21일(4월 셋째주 토~일)로 확정됐다.

제16회동기회는 최근 부산 중구 대청동 옥정프라자(옥무웅 동문 운영) 3층 '해조음'에서 윤영식 회장 주재로 고문·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문 이사 클럽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졸업 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가 전 동기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한마당잔치가 되게끔 고문 이사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각종 행사 결산 및 회무 보고를 승인한 후 ▷홈커밍데이행사는 2002년 4월 20~21일 개최하고 ▷행사는 재경동기회와의 의논을 거쳐 허용재정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며 ▷준비위원장은 동기회장이 지명하여 전권을 위임한다는 등 주요내용을 결정했다.

제37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成昌洙 성창수치과 원장 051-247-7123
安明道 (주)현대상성 과장 02-3706-6375
裵韓石 CASIA북경 소장 86-10-65051333
崔起榮 카톨릭성형외과 원장 02-865-0028
金尙德 우현상사 대표 02-3472-0887
金珉鎔 아폴로완구 대표 051-246-3072

회 장
金正洙 미래산업 대표 051-962-2114

총 무
李春雨 ING생명 051-636-1833

감 사
崔永勳 디젤테크 대표 051-413-3420

부회장
權奇元 한독치과 원장 051-861-8497
李柱弘 한가족이비인후과 원장 051-600-3887
金永坤 김영곤내과원장 051-263-0232
金志雄 서인한의원 원장 051-208-4587
許 杰 허걸비뇨기과 원장 051-416-8009
姜承中 금성출판사 017-541-7531

이 사
姜德泰 태진의원 원장 051-637-1106
金致諺 명지한의원 051-203-5146
朴鍾敏 키즈어린이영어학원 원장 051-628-0365
金光國 KTF 나라콤 016-9304-1982
吳基旭 고은미술학원 원장 051-731-2560
梁淳男 밀리오레 051-922-4532
金亨基 현대자동차영업소 소장 051-262-0311
高正煥 051-265-5379
姜龍河 서강유통 대표 055-372-5036
姜聲玉 대영인쇄 대표 051-247-5631
金聖旭 아폴로완구 이사 051-246-3072
金元律 오죽향 대표 051-301-5292
金在憲 유니스건설 과장 051-583-1250
盧昌勳 옥정장모텔 대표 051-464-8858
朴相鉉 동부지원 검찰행정 011-883-0734
梁泰馨 푸르덴셜 생명보험 051-505-0170
柳浩燮 하나병원 원장 051-3366-119
李永斗 건축사 대표 051-462-3398
李壽榮 영어학원 원장 016-9305-8838
趙誠珏 신용보증기금 부산점 과장 051-647-2324
張原翊 (주)일신조경건설 대표 051-464-9213
金鍾暉 이상 약품 차장 017-552-5388
張棟漢 장동한일반외과 원장 051-636-5667
趙奭濟 일월통상 대표 051-266-0171

재경회장
南茂鉉 (주)베리텍 대표이사 02-3446-6114
재경총무
金祥鉉 네오아트건축사 대표 02-541-2055
全在悅 테코상공(주) 차장 02-682-8146

재경동창회 장학재단 출범

기금 3억5천만원 조성… 재학생 · 졸업생 · 동문자녀 등 수혜

초대이사장 박종구(5회)

재경동창회(회장 이상택 · 13회)는 숙원사업이었던 장학재단을 설립, 재경 용마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게 됐다. 이는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에 이은 두 번째 경사이다.

재경동창회는 지난 1월 3일 법인기금 3억5천만 원 규모의 '경남중고재경동창회 장학재단'을 지난 12월 28일 공식 설립하고, 이사장에 박종구(5회 · 삼구 회장), 이사에 고석명(10회 · 크린텍 사장) · 이규만(12회 · KML 대표이사) · 이상택(13회 ·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 윤승홍(14회 · GF 회장), 감사에 윤성복(22회 ·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이상운 동문(29회 · 변호사)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경 장학재단에서는 △경남중고 재학생 △교직원 △재경 용마가족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경장학재단은 김경희(9회 · 용마공영 대표이사) 당시 회장이 모금에 나선 것이 '종자돈'이 됐고, 이어 안우만 회장시 2억6천만 원으로 확충한 후 설립을 위한 최소 재원인 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정기예금에 맡겼다.

이후 경구회(모교 야구부 출신 재경동문 모임)에서 '2001년내 재단 설립 경우 5천만 원 기탁'을 약속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재학재단 설립은 그간 109명의 동문이 기금을 흔쾌히 출연함에 따라 짧은 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경동창회는 지난 12월 6일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같은 달 26일 설립허가서를 발급 받아 절차를 완료했다.

장학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조규향(14회 · 전 청와대 교육수석) · 엄상현(29회 · 교육인적자원부) · 진병건 동문(24회 · 국세청)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승학산 올라 활성화 설계

제24회 산우회 '건강 · 우정' 두 마리 토끼 잡아

제24회동기회 '24산우회'는 지난 1월 6일 승학산 등정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산여고 옆을 돌아서 급경사의 오르막을 탄 한예식 동문 등 15명은 1시간30분 동안 발품을 판 후 정상에 올랐다.

1진은 박홍규 동문이 개발한 제법 한적하고 조금은 험한 코스를 탔고, 2진은 승학산 중턱을 돌아 옛 광성공고 앞에서 꽃마을을 돌아 내려오는 코스로 밟았다.

1, 2진은 이곳에서 합류한 후 '산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경남 동기회장과 박태진 총무가 참석, 동기회 격려금과 별도의 금일봉을 협찬해 박수를 받았다.

총회는 결산보고와 올해 산행계획안을 승인했고, 우수회원 표창(△1위 정기춘 동문-11회 산행 중 10회 참석-10만원 상당 배낭 △2위 강동우 동문-11회 중 9회 참석-5만원 상당 등산티), 8월 산행과 동기회의 하계수련회 연계방안 등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승학산에 올라 신년 설계를 펼치고 있는 제24회 산우들

동기회 새 집행부 출범

제8회 회장 김봉길

제8회동기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연회실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봉길 동문(전 경남고 교장 · 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정곤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은영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선했다.

제10회 회장 전영대

제10회동기회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이화정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전영대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한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고, 이어진 송년잔치는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엮어졌다.

제24회 회장 김경남

제24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용마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 김경남 수석부회장(동아공업사 대표)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박홍규 회장이 주재한 이날 1부 총회는 부부동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2부 송년잔치는 김정모 동문(한국교양문화협회 회장)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시종 흥겨웠다.

살며 사랑하며

'평생친구' 만들기

김경희
제9회
재경동창회 고문
(주)용마공영 대표이사

미국 청교도 문학의 대표작인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로 널리 알려진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이 미국의 최고 소설가로 이름을 떨칠 수 있기까지는 친구들의 도움이 컸었다고 한다. 호손이 보든대학(Bowdoin College)에 다닐 때 절친한 네 친구가 있었다.

첫째 친구는 호레이쇼 브릿지로, 호손을 위해 조건없이 출판비를 부담하여 문단에 데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친구는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로, 자기보다 늦게 등단한 호손을 위해 책의 서문을 써주는 등 헌신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등 네 친구들 호손 죽을 때까지 도와

세 번째는 상원의원이 된 조나단 시레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손을 보스턴 세관에 취직시켜 10년 간 근무토록 했다.

네번째 친구는 제14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피어스, 호손을 형제애로 항상 도와주었다. 호손은 말년에 그의 배려로 영국의 리버풀영사로 봉직하기까지 했다.

1864년 호손이 죽자 그의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두 나와 전송해주었다고 한다.

젊어서의 우정이 평생동안 지속되었던 이들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도 부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손의 친구들은, 그들이 대통령이나 상원의원이나 유명인이 되었어도 처음으로 만났던 친구로서의 겸손한 자세에 변화가 없이 꾸준함과 비록 힘든 경우에도 최소한의 배려를 잊지 않는 우정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신분의 우열 따질 땐 진정한 우정 기대 못해

무엇보다도 이들은 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신분이 달라졌다 하여 지난날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벗은 행복이요 큰 자산이다. 때문에 동무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친구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평소 늘 입에 올리는 말 중에 "인생이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자주 만나야 친구"란 말을 즐겨한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름길 같은 쉬운 방법을 즐기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삶의 질은 적당한 지름길을 택한다 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삶의 전환점 되기도

리프레이밍(Reframing)이란 '조건의 변화로 의미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즉, 그림의 액자를 바꾸어주면 전혀 다른 그림처럼 보이는 것처럼 조건이 바뀔 때 하나의 환상이 예전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해가 바뀌면 생활패턴을 조금 바꾸자. 작은 격려를 나누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하자.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하단 전체(8.2cm × 25cm) : 400,000원
하단 1/2(8.2cm × 12cm) : 200,000원
하단 1/4(8.2cm × 6cm) : 100,000원

· 내 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영일만 친구들 굳게 뭉쳤다

포항지역 정기총회 열어 새 집행부 출범… 회장 김철헌(22회)

포항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4일 오후 6시30분 경북 포항시내 별궁횟집에서 '2001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선-후배간 뜨거운 정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는데, 임원 선출을 통해 회장 김철헌(22회·김철헌재활의학과의원 원장·사진)·부회장에 신형기(23회) 정무열(24회)·감사에 조 익(25회)·총무에 박재찬 동문(34회)을 각각 뽑았다.

동문들은 이날 2부 여흥시간에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회포를 풀었다.

※연락처 : 054-242-1311

정금출(8회) 고신언론사 사장 재선임

정금출 동문(8회·기독교보 편집인 및 사장·사진)은 최근 열린 고신언론사 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유임됐다.

정 동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기관지인 '기독교보' '월간 고신' 등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는 직종에 6년 간(임기 3년) 재임했고, 이번에 다시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70세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일오산우회 납회산행 신임회장에 김중광

제15회 일오산우회는 지난 12월 16일 금정산에 올라 납회산행을 하고 온천장 '죽마고우'(김승일동문 운영)에서 정기총회를 치른 후 송년회를 벌였다.

장종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 20명과 부인 7명이 참석했고 이동근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았으며, 임원 개선에서 김중광 동문(온천이비인후과의원 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최원수 동문을 총무로 뽑았다.

선박용사다리 생산 삼공사 대표 임도근(18회) 영예의 부산수출대상 수상

클로즈업

"안팎에서 성원해준 용마가족의 격려를 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영예의 제3회 부산수출대상을 수상한 (주)삼공사의 임도근 동문(18회)의 수상소감이다.

임 동문은 1971년 창업한 이래 30년 간 선박용사다리와 창문, 유류청정기 등을 생산, 이를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주)삼공사'의 명성을 떨쳐나갔다. 올해 수출실적은 273만 달러.

조선기자재 업체의 선두주자인 임 동문은 수입에 의존하던 선박용사다리 등의 국산화에 성공, '세계적 제품'으로 평가받는 데 성공했다.

임 동문은 1992년 9월 기계류 국산화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일본과 대만 등에 역수출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촉진시킨 공로로 지난해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과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경열회 9개 친목회 신임 회장 선출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회장 이승락) 각 친목회의 만남을 알리는 2002년 1월 '학급수업시간표'가 확정됐다.

최근 발표된 이 시간표에 따르면 9개 친목회 중 사니조아회만이 1월20일 대모산 산행을 해 몸을 풀고, 강북화요회 등 8개 회는 한달내내 쉬기로 했다.

한편 각 친목회는 '머슴(회장)'을 새로 뽑고 활성화를 촉진시키로 했다.

▷강북화요회는 손 정(031-903-8567) ▷안산화요회 김기문(02-745-3900) ▷사니조아회는 이계창(02-333-0136) ▷여의도화요회는 김상태(031-717-0587) ▷경록회는 이정배(02-914-2535) ▷강남화요회는 성 온(031-264-4621) ▷새보리회는 김영덕 ▷경열테니스회는 김용목 ▷경열바둑회는 박해철 동문이 각각 맡아 살림을 꾸려 나가기로 했다.

김 조(16회) 등대회장 유임
김용호(14회) 공로상
옥영철(21회) 등대인상

등대회(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 등 관련 업계 동문 모임)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2002년 정기총회겸 신년단합회를 열고 김 조 회장(16회·천우교역 대표)을 유임시켰다(사진).

김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한편 이날 유공자 표창을 통해 회의 발전에 공이 큰 김용호 동문(14회·용호선박 대표)이 공로상을, 옥영철 동문(21회·부산경남세관 감천출장소 소장)이 자랑스런 등대인상을 받았다.

마산·창원지역회 사랑방 문 열어

마산·창원지역동창회가 동문-가족들의 숙원이던 '사랑방' 문을 열어 경사에 묻혔다.

마창동창회는 지난 1일 15일 오후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3-7 대아빌딩 3층(055-266-7009) 현장에서 '사랑방' 개소식을 가졌다(사진).

김재근 회장(19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임원 다수와 역내 동문 등 30여 명이 축하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창원지역 용마가족들이 희망하던 '사랑방'을 이제사 문을 열었으나, 앞으로 이곳이 우리 모두의 우정과 친교가 넘치는 화합의 광장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사랑방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응접세트와 냉장고, 음료수기, 바둑 및 장기판, TV수상기 등 다양한 집기들을 협찬했다.

제21회 동기회도 사랑방 열고 자축연

제21회동기회는 지난 12월 21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1-6 재원빌딩 403호(051-441-2179) 현장에서 전용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오거돈 회장(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개소식에는 30여명이 참석, 자축했다.

동문이 펴낸 새 책

'한국 한천산업의 발자취'

이재일(18회) 지음

이재일 동문(18회·언론인·사진)은 우리나라 한천(寒天)산업의 명암(明暗)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역저 '한국 한천산업의 발자취'를 최근 펴냈다.

이 동문은 '한국 한천산업…'을 통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한천은 한 해 수출고가 120만달러 안팎을 기록, 한국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한천산업이 어느날 사양길로 떨어져 한때 45곳이나 되던 한천공장들이 이제 겨우 6곳 정도가 됐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한천 개요와 기원 ▷제조과정 ▷한천산업 발달 ▷한천산업의 역군들 ▷한국의 한천산업 어제 오늘 내일 ▷공업한천 등장 ▷한천산업의 재기를 위한 대안 등 모두 15장으로 엮어져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서울신문사(대한매일 전신) 과학정보부장·교통신문 이사 및 편집국장·월간 인터넷라이프 편집인 및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몇 군데 웹사이트 등에 정보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컴퓨터를 켜면 세상이 열린다'가 있다.

송년잔치 이모저모

김해 용마가족 100여명 모여 부산편입 옛친구들 초대

김해지역동창회 '2001 송년회'가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관광호텔 연회장에서 동문-가족 1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박세갑 회장(15회)은 1부 기념식에서 6명의 역대 회장에게 동문 모두의 뜻으로 마련한 인삼을 각각 1상자씩 선물, 헌신한 공로를 기렸다(사진·왼쪽).

이날 동문-가족들은 2부 여흥을 통해 숨겨둔 장기·노래·춤 실력을 한껏 자랑했고 푸짐한 행운상과 기념품을 선물로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십수년 전 김해지역에서 부산 강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소원해왔던 가락 대저 녹산 명지의 동문들이 대거 초대되어 옛정을 서로 나눴다.

제15회 부인들 화장품 선물에 탄성

제15회동기회 송년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동문-가족 95명(남자 64명·여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오른쪽).

김판열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 2부 행사는 시종 웃음과 격려와 축복이 넘쳤다. 2부 여흥은 동문과 부인들의 노래대결 등으로 엮어졌다. 참석자들은 구형우·박 용·이영정 동문 등의 선물과 동기회의 새해 캘린더 등을 받았다. 부인들은 동기회의 화장품세트를 받고 즐거워했다.

제15회 동직능회

△38회(회장 최병우)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장춘방에서 송년회를 겸한 제43차 정기월례회를 열었다. 강용규 동문 등 20명(남자 11명·여자 9명) 참석.

△화친회(회장 김판열)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30분 온천장 소도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월례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했다. 김명배 동문 등 13명 참석.

'미국 · 중국에서 날아온 '짧은 사연 긴 우정'

'용마기상' 미시간 호숫가에 나래 펴고(上)

희망의 새해 2002년이 밝았다. 올해는 모교 개교 60주년의 해인지라 국내외 용마가족의 기대가 뜨겁다. 이를 반영이나 한 듯 새해를 맞아 미국 시카고 유정호 회장(16회 · 의사)과 중국의 박해득 회장(24회 · LG전자 IT영업)이 용마가족의 이모저모를 전해왔다. 유 회장의 글은 상 · 하로 나눠 소개할 계획이다.

유정호
제16회
미국 시카고지역회장

2001년 10월 둘째 주말. 미국 시카고가 비에 젖어 을씨년스럽다. 어제는 뉴욕의 동기생 이동준군(5년째 투병)과 전화로 1시간30분 동안 수많은 말들을 나눴다.

그러고보니, 같은 해 9월 23일(일요일) 이곳 St. Paul Woods Grove #3에서 열린 시카고지역동창회 가을야유회 때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었군.

이날 모임에는 김봉현(5회) 선배님을 비롯한 14개 가정의 동문-가족들이 모였는데, 투병중인 조석제(9회) · 정원조 동문(23회 · 최근 별세)의 근황이 정담 속에 뒤엉켜 우리들을 다소 우울하게 만들었다.

짖궂은 날씨 때문에 공원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우리는 최윤환 동문(14회) 댁으로 '2차 소풍'을 갔다.

조촐한 만찬에 곁들여진 여흥은 시카고의 용마가족을 더욱 결속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학창시절 음악선생님과 독일어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보리수' 등 독일 가곡(그땐 독일어 선생님의 성화로 독일가곡은 꼭 원어로 불러야 했다.)들을 목청껏 부르며 '추억여행'을 했다.

가을야유회 '2차 소풍'서 신나게 합창하며 추억여행

이날 선배님들과 내 또래들은 당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통해 우리를 한국 최고의 멋쟁이 지식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심했던 은사들을 그리워했다.

단체기합의 명수(?) '코주부' 김재정(교무주임 · 화학) · '구덕산 호랑이' 주상우(훈육주임 · 생물) · "부모임이 주신 야구후원회비를 어쨌느냐"며 닥달하시던 담임선생님 등…

그리고 추월영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용마들이여, 각자 큰 자부심을 갖고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큰 인재가 되라"고 하신 훈화를 잊지 못했다.

시카고지역, 북미대륙의 심장부가 되는 5대호 주변에는 80여 명의 동문들이 모두들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선후배들이 형제애로 뭉쳐 시카고지역동창회를 출범시킨 지도 어언 30년이 넘었다.

미국 시카고 용마가족이 가을야유회 (2001. 10.13)에서 정답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무섭던 은사님들 왜 자꾸자꾸 보고싶은지 …

동창회를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시카고에 개척자의 정신으로 정착, 뒤에 오는 후배들을 이끌고 지도하신 김봉현 선배님(5회)을 비롯해 바쁜 가운데도 후배들을 큰사랑으로 포용하신 여러 선배님들-장태근(6회) · 김진환(8회) · 조석제(9회) · 김석홍(11회) · 배준환(11회) · 허남석 · 전용찬 · 이근보(이상 12회) · 이수우(13회) 등 역대회장들이 여러 동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드러나지 않는 크고 작은 사랑과 노력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생면부지였던 동문들이 먼 이역에서 처음 만나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어려움을 의논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오로지 같은 스승의 지도 아래서 토성동의 교사에서나, 또 '똥구두'를 끌며 공부하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르내리던 구덕산 속에 자리잡은 원형교사의 난간에서 우리의 젊은 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서로 미래의 꿈을 나누던 친구였기 때문이다.

원형교사는 미래설계 요람 야구응원 등 자부심 활활

구덕운동장이 떠나가라고 응원하던 우리들의 함성, 황금사자기와 청룡대기를 향하여 진군하던 야구선수들을 응원하러 밤차 타고 올라온 후배들을 꽹과리 치며 서울운동장에서 반겨주던 그 선배님들의 사랑, 대학가 하숙방에서 밤새워 인생을 논하던 선후배들이 나누던 참이슬 같은 우정이 초롱초롱 맺혔기 때문이다. '단단한 쇠와 같이 달리고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처럼 나아가던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시카고지역에는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여 우리 용마들의 자랑이 되는 동문들이 많다.

'개척자' 박봉현 선배 등 이름 날리는 동문 수두룩

특히 Northwestern 의대의 신경방사선과 교수를 지낸 김광수(5회), 시카고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Law school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됐던 김봉현(5회),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가장 큰 Argonne 연구소에서 업적을 쌓고 있는 김석홍(11회), 시카고 한인의사회 회장 및 한인회 이사장과 St. Mary of Nazareth병원의 Medical Staff President를 지낸 허남석 동문(12회) 등이 그러하다. 또 우리 동문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여 미국 주류사회를 향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지역회장인 유정호 동문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시카고의 Swedish Govenant Hospital과 Holy Cross Hospital 신경내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유 동문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유기형 · 전 부산대의대 교수)와 백부(유기원 · 전 국립의료원장)를 비롯해 3명의 숙부, 1명의 고모가 의사출신.

세계적 형법학자였던 유기천씨(전 서울대 총장)는 유 동문의 넷째 숙부이다.

겨울골프로 건강다지고 신년단합회

박해득
제24회
중국지역동창회장

지난 1월 5일 낮 이곳 북경의 동문들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새해맞이 골프대회를 열었고 저녁에는 홍성표(23회) 박해득(24회) 김동철(25회) 이우영(26회) 전재민(28회) 배승한(30회) 백현철(32회) 배한석(37회) 유재영 동문(39회) 등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단합회를 펼쳤다(24회 김도인 동문만이 출장 관계로 불참).

단합회는 덕담으로 가득찼고 아시아나 항공 북경지점장인 백현철 동문이 부장으로 승진해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단합회 끝자락은 교가 합창과 '후라, 경고' 외침으로 장식됐다.

"니 새까만 알라네" YS 옛날(?) 얘기에 폭소 쏟아진 회식

이날 좌석을 폭소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새 가족이 된 유재영 동문이 들려준 YS와 얽힌 에피소드 한토막. 내용은 이렇다.

유 동문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의 '용마의 밤' 축제에 참석.

마침 3회 선배님들의 테이블을 유 동문이 서비스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참석하신 김영삼 선배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선배님 왈 "니 맷해고?" 묻더란다. 유 동문이 "39회입니더"라고 대답했더니 김 선배가 파안대소하시면서 "와 새까만 알라네" 하시어 모두가 웃었다고 한다.

지나간 추억담이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다.

금년은 말 그대로 말띠해로 우리 용마가족들은 모두 기상을 마음껏 떨치며 하시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저가 이곳 동창회 회장을 1년 더 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무는 배한석 동문과 유재영 동문이 맡아 주기로 했다.

어디서 무엇을

마산창원지역동창회

김의환(13회)=지난 7월 16일 부친 별세
이효준(13회)=(개업)TK상사 . 055-221-3218
최성웅(14회)=(개업)코오롱약국. 055-252-3393
이수창(17회)=지난 10월 29일 자녀 결혼
전창웅(17회)=지난 10월 29일 자녀 결혼
여성국(17회)=지난 11월 5일 마산해양수산청장으로 부임
강인섭(18회)=지난 9월 1일 도교육청 정보화과장으로 부임
김재근(19회)=지난 12월 19일 장인 별세
오경종(19회)=지난 6월 29일 동마산경찰서장으로 부임
김영덕(20회)=지난 7월 1일 경남은행 본점 감사로 부임
강경구(21회)=(개원)우정병원. 055-223-7988
김태홍(24회)=(개업)선진프라자약국. 055-247-1562
김수국(25회)=지난 12월 22일 자녀 결혼
심덕수(26회)=지난 7월 18일 모친 별세
김종하(27회)=지난 9월 13일 부친 별세
이인수(28회)=지난 9월 20일 마산해양수산청장으로 부임
김의석(31회)=지난 11월 23일 모친 별세
안정모(32회)=유한회사 선명철강 대표. 경남 창원시 도계동 889-6. 055-223-3339
박정수(34회)=신인재뱅크(주) 영남사업본부 지사장. 055-289-7972 018-572-8277. E-mail:jspark@gma21.com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 224호

제 4 회

尹連道=(자택이사)부산 사하구 신평2동 437 삼창아파트 102동 811호. 051-203-8254

제 6 회

崔甲永=(자택이사)대구 달서구 대곡동 1028 진천2차 삼성래미안 204동 1302호. 053-644-6696. 팩스 053-642-7171

제 8 회

金珍奭=(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7동 102호
鄭相賢=(자택이사)서울 종로구 무악동 82 무악현대아파트 104동 902호. 02-735-9044
李正允=사회복지법인 남해자매원 운영. 고아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이 동문에게 동문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李重根=지난 12월 25일 별세
李奎馨=철웅스님. 동국대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 701호 입원 가료중
朴祉秉=현대인의 삶과 직업윤리 저서 출판에 이어 한국주택 행정론 출간
李鉉文=(자택)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44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5동 1701호. 031-263-7887. (사무실)02-3472-3555
田英培=(자택)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44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01동 1201호. 031-266-5287
孫世一=(자택)031-915-0106. (사무실)02-713-8545
신경화=경남 김해시 외동 883 일동한신아파트 124동 204호. 055-336-7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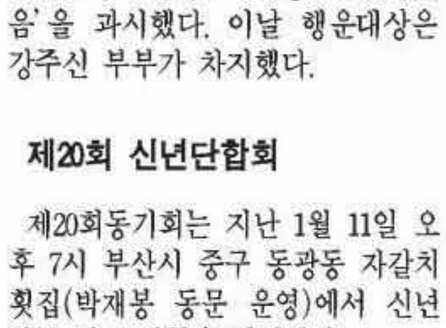
눈 덮인 팔영산~달마산 경팔산우회원들 등정

제8회동기회 등산모임인 경팔산우회는 지난 12월 25~26일 이틀 동안 눈 덮인 전남 고흥의 팔영산과 해남 달마산에 올랐다.

김문각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산꾼들은 눈길을 헤치며 정상에 올라 노익장을 과시했고 새해 산행설계를 의논했다.

모두들 정상에서 완도 너머 펼쳐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에 심취됐다. 장흥에서 하룻밤을 묵은 일행은 신녹원관에서 별미스런 음식맛을 즐겼고 보성 율포에서는 해수녹차탕으로 원기를 되살린 후 귀가길에 올랐다.

행운대상 강주신 부부 제14회 '진갑잔치'



'진갑고개'에 오른 용마가족이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풀면서 재충전을 했다.

제14회동기회 동문·부인 100여 명은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에메랄드룸에서 송년잔치를 벌였다.

한규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구수한 재담꾼' 박청홍 총무의 사회로 진행돼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즐겼다.

동문-부인들은 이날 2부 여흥을 통해 남녀 노래 대결과 부인합창, 원맨쇼, 장기자랑, 캉캉춤 경연 등을 펼쳐 '아직도 노병은 살아있음'을 과시했다. 이날 행운대상은 강주신 부부가 차지했다.

제20회 신년단합회

제20회동기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 부산시 중구 동광동 자갈치 횟집(박재봉 동문 운영)에서 신년회를 열고 단합을 과시했다.

최장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기회 출범 이래 최다로 꼽힌 51명이 참석, 우정을 다졌다.

김중하 산행노트

금산회, 그 정다운 웃음들이…

사회에 나름대로의 봉사를 충실히 했고 이제 쉬어도 좋을 이순(耳順), 그러나 그냥 쉰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의기를 소침하게 만들어 병이 된다. 그래서 제11회 친구들이 뜻을 모아 금요일마다 금정산을 오르는 모임을 2000년 11월에 만들었고, 이름을 '금정산우회(일명 금산회)'라고 붙였다.

지하철 두실역 서쪽 끝, 금요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여남은 정다운 얼굴들이 모여 금정산 제3망루를 향해 오른다. 이 시간, 구서초등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조잘거림과 함께 걷다 보면 귀여운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거나 소풍이라도 나선 듯 흐뭇하고 즐거워 생기를 되찾는다.

잘 다듬어진 등산로, 쉬엄쉬엄 물망골 체육공원에 올라 간단히 몸을 풀고 찬 물로 목을 추기면 청량한 마음이 된다.

바윗길을 오르면 솔향기 그윽하고, 두실·남산동 아파트들이 성냥갑 세운 듯 보이는 너덜길을 비껴 간다. 그리고 한차례 숨을 몰아쉬며 오르면 놋정약수터. 자주 오는 사람들과 목례를 나누고, 세상살이 투정과 정치판의 추잡함을 난도질하다가 석간수로 더러워진 입을 행군다. 그래 우리가 남의 험담이나 하자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부산의 진산 금정산, 그 넉넉한 품에 안겨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증오와 질시를 떨쳐 진정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일진데 오탁한 말을 한 입과 그걸 들었던 귀를 씻어냄이 옳은 일.

다시 숨을 고르며 올라서는 제3망루 산서 동편의 억새밭. 화왕산, 신불산의 억새가 좋다지만 어찌 여기에 비기겠는가.

길을 넘게 자란 놈에 나지막히 자세를 낮추는 억새, 그리고 작은 풀꽃이 앙증맞은 사이를 헤쳐 나가 망루 밑 평퍼짐한 터. 거기서 보는 금정산은 금강산에 못지 않는 경관이다. 고당봉이 멀찍이 지켜 보고서있는 앞으로 무명릿지가 용마장성처럼 날카로운가 하면 그 아래로 펼쳐지는 억새밭은 그대로 초원의 낙원이다.

험산고봉을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니다. 부산 시민의 정신과 마음의 중추 금정산을 오르는 것은 고향과 삶의 터를 더 진한 사랑으로 쓸어안는 일이다.

밀고 당기며 바위들을 타고 넘어 금샘에도 올랐다. 그것은 우리가 금정산을 사랑하고 그 품에 안김을 신고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처음은 숨을 몰아 쉬며 주저앉기만 하던 김형은 이제 선두가 되었고, 건강을 잃을 뻔했던 강형은 작은 스틱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도 걷는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털고 일어나 삶의 의욕을 되찾고 함께 산행을 한다는 것이.

염한호를 회장으로, 이상태를 총무로 세워 일을 갈무리하게 맡겼지만 서로가 일을 나누어 하고 마음씀씀에 따뜻함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 그래도 모임인데 싶어 매월 회비를 내서 모으는 것은 요긴할 때 쓰기 위함이요, 그날 경비는 그날로 모아 결산하면 그만이다.

(11회 ·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 · 원내 사진)

신홍규 신춘에세이

"耳順? 그건 말짱 헛말이여!"

성의 없이 찢은 연습장, 굵은 사인펜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머뭇거린다. 뭘 쓸까? 耳順-생각이 원숙해져서 뭐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공자가 말한 60대의 변이다. 젠장, 헛소리일 뿐이다. 뭘 이해한다는 말인가. 어느새 또 원인 모를 소외감이 휘감는다. 그 앞을 절벽 끝에 놓인 남루한 차림의 한무리 인간군상들이 가로막는다. 손과 발이 절단된, 그래서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누구인가? 허허.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우리 세대의 절박한 단면이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걸까.

시작부터가 문제다. 글하나 써보려는데 흰 종이에 사인펜이라니, 그래서 쓸데없이 만용을 부렸다. 세월을 따라 잡으려고, 사이버 공간에 친숙해지려고, 독수리타법으로 발톱을 곤두세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도 도통 마음이 편칠 않다. TV보다도 자그마한 기계덩어리놈이 날 잡아먹으려 노려보고 있다. 꿈뻑꿈뻑 쳐다보는 커서의 '눈빛'이 영락없이 외박한 날 나를 노려보던 마누라의 살기어린 시선이 아닌가. 이러니 진도가 나갈 리 있나. 어렵사리 한 글자 치곤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길 한 시간여, 딸애는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날 마냥 이상스럽게 쳐다본다. 결국 그냥 일어서고 만다.

쉽사리 사이버문화를 이해하려 한 욕심이 화근이다.

처음부터 연습장 찢어놓고 쓰는 건데 말이다. 그런데 딸애의 방에서 연습장 하나 찾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아니, 책상머리에 연습장 하나 없다니 애는 대체 공부를 하는거야 마는거야. 볼펜? 이건 더 가관이다. 한동안 안 써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놈은 그래도 봐 줄만하다. 어떤 놈은 썩어문드러진 속살(볼펜촉)을 툭 드러내놓았다. 침(잉크)도 말라붙었으니 써지길 하나.

결국 '보름장터'에 글하나 어찌 어찌 써보려고 시간내서 문방구를 찾았다. 어허? 문방구가 안 보인다. 하고많은 그 문방구가 말이다. 눈에 띄는 건 제다 '세븐 일레븐'이나 'LG25시' 뿐이다. 10원 하나 놓고 씨름하던 옛 문방구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걸까. 밤잠 곤히 잘 야간의 시간마저 자본의 논리에 굴복시켜버린 '웅장한' 편의점이 가소로운 듯 웃는다.

공자여! 그대는 이제 시공을 초월한 스승이 아니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생각을 고수하는 고집불통 늙은이일 뿐이다.

60대? 그야말로 '耳難'이다. 네티즌? 방가? 이모티곤? 메신저?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신조어, 현실 하나로도 이해가 어려운데 가상공간까지 생겨버렸으니… 우리의 현실은 '耳難'이다.

'이순'이란 의미속에 숨어서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한 표정만으로 그냥그냥 넘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60은 또다른 말로 '還甲'이라고 하던가. '甲子, 乙丑…'으로 시작한 간지(干支)가 한 바퀴 돌아 다시 '甲子'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걸 놓고 늙은이를 회롱하는 데 쓴다. 정신까지 어려져서 치매걸리기 좋다는 둥,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 그냥 돌아가선 더더욱 안 된다. 다시 돌아가되 치열한 정신으로 세상을 배운다는 의지 또한 되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안락한 휴식이 좋아 그 속에만 젖어있기엔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한다.

결국 나는 '보름장터'에 한자 끄적이려 마련한 연습장에 '耳難' 두 글자만 적어놓고 말았다.

(제15회 · 근풍 대표 · 원내사진)

어디서 무엇을

제 10 회

鄭相秀=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50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101동 802호. 031-286-1988

宋南進=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53-1 세동한신아파트 101동 2103호. 051-809-4416

李在淳=성림개발(주) 대표. 지난 12월 25일 부친 별세

心英煥=1월 10일 63빌딩 별관 2층 코스모스홀에서 아들 결혼

金達顯=(자택이사)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1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205동 602호. 02-3492-7171

全圭三=(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금호아파트 152동 1402호. 031-272-9399, 0505-700-9399

金時烈=(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증리 1169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101동 404호. 031-264-0180

姜在煥=신아약국 대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6 현대9차상가 3동 106호. 02-544-5475

兪鉦玉=(자택이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126 문촌마을 신우아파트 1905동 1301호

李孝述=(주)삼성이주공사 고문, 감사(총괄담당).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92-7. 02-754-9811~5. 019-305-6679

제 12 회

孔永穆=10월 11일 별세

具奉權=충북대학교 토목공학 교수. 043-264-8032

金斗洙=제주 경일자동차학원 원장. 064-799-7780

金原慶=원주 학성1동 삼천리아파트 202동 911호. 033-763-1008

金宗瑞=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14동 407호. 042-522-2181

金漢斗=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성원아파트 106동 1502호. 031-908-2771

朴昌洙=강원거진 후생병원 원장. 033-682-2012

宋永吉=춘천 중앙상사 대표이사. 033-254-7021

李英吉=원주 단계동 라이프아파트 102동 202호. 033-745-9880

姜麟周=지난 12월 8일 장남 서울에서 결혼

金秉龍=지난 12월 29일 서울에서 모친 별세

金容鎬=지난 12월 12일 경문회 송년회 때 회장으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金喆基=(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30동 802호. 051-612-2777

文正秀=지난 11월 30일 서울에서 장녀 결혼

柳博行=지난 12월 22일 포항에서 모친 별세

林成森=지난 12월 23일 서울에서 장남 결혼

張東錫=12월 18일 동구 연제구 부산진구 지역 송년회 때 회장으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田判在=(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28동 901호

鄭大植=(주)나라콤. KTF선불요금제. 016-873-9314

崔守幸=(자택이사)서울 은평구 응암동 81-101 지림빌아트 401호. 02-354-8058, 353-8291, 019-296-3104. (주)싸인텍 부사장 취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373-3. 02-364-4477, 팩스 02-393-9245. E-mail:signhp@hanmail.net.

제 13 회

金永吉=지난 12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홀에서 장녀 은경양 결혼
金百祚=지난 12월 16일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장남 태영군 결혼
尹起甲=1월 6일 상록회관 5층에서 장남 정웅군 결혼
鄭三永=1월 12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녀 가진양 결혼
朴永忠=(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0 대우마리나아파트 204동 1102호
鄭然浩=1월 12일 해운대 마리나 센터웨딩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제교군 결혼
高時準=(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안락2동 153-1 주공아파트 11동 401호
朴弘一=(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37 현대아파트 108동 1502호
李正雄=사위 임상필 사시 43회 합격(지난 12월 27일자)

제 14 회

金健鎬=(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60-1 삼환아파트 103동 206호. 051-806-4452
陳成太=고려병원(합천) 원장. 1월 16일 모친 별세. 055-934-1102~3
金益明=(주)대한정밀 대표이사. 지난 12월 15일 늘봄공원예식부(서울)에서 차남 결혼. 052-231-0601
尹龍雄=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지난 12월 6일 지병으로 별세. 051-863-5651
潘米太=(주)서강엔지니어링 단장. 지난 12월 23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차남 결혼. 051-465-2551. 254-7508
朴淸弘=동기회 총무. 지난 12월 30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차남 결혼. 051-462-6114. 894-6226
金長均=서울 마포구 아현1동 64-67. 02-363-7576. 016-364-7576
孫永牧=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한국 어류학회장 피선(2002-3). 043-261-8402. 016-206-3414
崔良秀=서울시립대학 교수. 경기 구리시 교문2동 89 LG 한가람아파트 104동 601호. 031-555-0845. 011-9734-0841
黃秀吉=서울 도봉구 도봉2동 83-2 유원아파트 2동 806호. 02-6212-6680. 019-258-6680
南昌熙=경기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110 대지마을 2차 현대홈타운 203동 1802호. 031-307-5282. 011-305-5282
金宗度=수원대학교 교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 럭키아파트 110동 605호. 02-529-9672. 011-9091-2296
河敏宇=서울여자간호대학 이사장.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7 삼성아파트 106동 1404호. 02-305-1448. 011-759-1448
辛俊浩=지난 12월 11일 2남 결혼
金益明=지난 12월 15일 차남 결혼
김홍준=지난 12월 22일 아들 결혼

제 15 회

愼洪揆=(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58-5 현대아파트 105동 1403호. 051-864-8954
朴昭男=(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8동 339-69 (25/5). 051-868-8161
金大永=지난 12월 24일 부산대병원에서 부친 지병으로 별세
裵成勳=지난 12월 31일 동아대병원에서 부친 노환으로 별세
李永正=(취임)울산시 남구청 문화원 사무국장. 052-266-3786. 052-229-5220
任炳徽=(승진)부산시의회 사무국장. 051-519-4091
權永吉=민주노동당 대표. 서울당사와 창원지역구에서 활동중. (서울)02-761-1333. (창원)055-281-0937
金敬又=(주)롯데햄·롯데우유 상무이사(영업본부장). 02-3479-5014
金賴明=기아자동차(주) 사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에 선출. 02-3464-5005
金秉浩=동아방송대학 학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과 자매결연 맺고 귀국. 031-670-6609
金雙烈=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위원으로 활동. (자택)0502-642-1010
金忠元=성우그룹 성우종합건설(주) 부사장. 02-3470-3106
南岩純=쌍문초등학교 교장 겸 전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02-900-3026
文玉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음. 02-740-8851
朴基義=KBS보도국 편집위원. 02-781-4222. (자택)714-5486
朴英武=대전고등법원 법원장 겸 특허법원 법원장. 양대법원장을 맡은 한국초유의 인사. 042-470-1001~2
裵 薰=중후그룹 올림픽웨딩프라자 이사. 02-906-9081 (자택)2235-9247
卞在信=현대건설(주) 상무이사 퇴직. (주)부영 전무이사. 02-3774-5555
吳鳳錫=(주)동일건축 대표이사. 사무실 강남사옥(동일빌딩)으로 이전. 02-515-1360(비서실)
柳宇英=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교수. 캠퍼스 안산으로 이전. 031-412-7320
李東源=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지난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국제해사기구) 국제회의에 참석, 한국의 이사국 선출후 귀국. 02-3462-0231
李在元=부광약품공업(주) 대표이사. 재경용마약우회 회장. 02-817-7537

제 16 회

韓一郎=지난 11월 10일 장남 영길군 결혼
崔良珠=사업처 부산. 부산설렁탕에서 부산동기생 27명에게 부산 주재 신고식 회식제공. (자택)부산 사하구 괴정1동 740 자유아파트 101동 1045호. 051-203-0498
兪英明=(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수안동 6-1 새동래아파트 다동 907호
趙勝南=지난 11월 27일 부친 별세
河希鎭=(주)멘토 해운대대리점 이사. 051-807-6964~5
李明洙=(자택이사)경남 합천군 합천읍 교동 671-4 시티빌 203호. 055-931-2273
朴鍾鳳=혜화여자중학교 교장. 지난 12월 16일 장남 근철군 결혼
金仁國=등지 대표. 동기회사무실에 고급형광등으로 일체 설치 제공
蔡景一=(자택이사)경산 사동 650-1 부영2차 205동 1801호. 053-818-4204
許宗和=진주 경상대 교수. 동경대학 1년 연수 및 독일유학 교수 마치고 귀국
方壽根=(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2동 345-6 신동비치 2동 1109호. 051-731-3227
玉茂雄=(개업)대청동 옥정프라자 3층에 일식집 해조음. 051-255-5911
李伯濟=(주)평진건축감리공단회장.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 127동 2402호. 051-612-6228
權仁壽=웅진코웨이개발(주). 051-634-7266

제 18 회

黃光健=(병원이전)충무동 황소아과. 051-254-9739
李成一=동기회 회장.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알루미늄 사업단 단장에 취임
崔成浩=대한화학상사 대표. 051-645-3367
陳湘永=남포동 지하상가 관리소장. 051-243-1696
鄭起龍=지산고등학교 교사. 051-743-5113
田炳熙=광혜병원 방사선과 과장. 051-503-2111
李在一=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SK아파트 103동 1002호. 051-932-9321
李相永=부산의료원 건강관리과 과장. 051-507-3000
孫天益=일본에서 귀국. 055-386-3797
宋寅喆=부산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051-507-3000
林道根=지난 11월 30일 2000만불 수출탑 수상
裵世元=가람중학교 교감. 051-335-8991
南斗鎭=금강예식장 대표. 051-554-7500
金思權=남부경찰서 서장. 051-623-3101

제 19 회

李宰吉=지난 4월 20일 장모 별세
崔光羽=지난 6월 3일 모친 별세
賓重亨=지난 6월 20일 모친 별세
曺正戊=지난 6월 26일 부친 별세. 지난 7월 7일 딸 결혼
吳炅鍾=지난 7월 2일 마산동부경찰서 서장으로 취임
金石九=지난 7월 2일 부산 동부산경찰서 서장으로 취임
朴甲珍=지난 7월 10일 장인 별세
李秀千=지난 9월 23일 양산 I.C.D 대표이사로 취임
金明星=지난 7월 24일 별세
이종훈=지난 9월 8일 딸 결혼
李鍾明=지난 10월 4일 장인 별세
鄭泰圭=지난 10월 29일 모친 별세(서울)
李春萬=지난 11월 3일 롯데호텔 라스베가스홀에서 아들 결혼
金 顯=지난 11월 3일 부친 유고전
黃泰元=지난 11월 24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아들 결혼
許孝吉=지난 11월 25일 딸 결혼
陳興在=지난 12월 3일 모친 별세

제 20 회

鄭海寧=인동25시약국. 부산 해운대구 좌동 980-3. 051-703-9497
朴玉陽=노동부 양산지부 과장. 부산 금정구 부곡2동 대우아파트 103동 802호
盧宣鎬=(주)오경 전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6. 011-884-6690
車相坤=동양제강(주) 전무. 부산 사하구 장림동 333-1. 051-263-5401
李千揆=명장주유소 대표.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29-1 한양아파트 3동 1301호. 051-523-1314
鄭永和=(주)종합기계 대표이사.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055-383-2300
金大斗=선진산업가스 대표. 부산 영도구 청학동 330. 051-417-8858
金相權=엄궁초등학교 교사.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5-1 화인아파트 905호. 051-255-0277
李成宰=특허청 심사1국장에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042-481-5820

제 21 회

尹承根=신생화원 대표. 장남 용조군 부산대 총학생회장에 당선
孔琪和=부산교대 체육교수. 수필가 수필 2편 '질그릇의 노래' '슬픈 골목대장'이 문학21에 당선
朴庠基=지난 12월 5일 모친 별세
李哲毅=지난 12월 8일 부친 별세
朴周坪=동남아해운(주) 상무. 051-461-7970. 011-885-7975
朴銘文=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 지난 12월 22일 장녀 결혼
李在洪=지난 12월 25일 부친 별세
成藥合=지난 12월 27일 모친 별세
成潤洙=1월 4일 모친 별세
陸泰洙=1월 20일 장녀 결혼
李漢善=제일거울(주) 전무. (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1동 가락타운아파트. 051-204-1288
張翰鍾=신우공업사 대표. 서면 영광도서 앞. 고래와 참치 개업. 051-806-3377
崔中植=변호사.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07 대원아파트. 051-781-3349
羅 哲=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245-36 (13/4)

제 22 회

金鎭榮=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051-463-7755
金東鎬=진묵산업 대표. 031-354-6240
김영철=태양알루미늄 창업. 031-479-0768
金鍾寅=대림산업 부사장으로 승진. 02-368-7074
卞哲圭=동국제강 이사. 02-317-1011
李敬相=신세계 부사장. 02-707-1032
張東旭=SBS 일산 예능총괄국장. 031-910-6000
張炳迪=삼영모방 상무. 031-830-7150
宋基榮=(자택이사)경기 용인 수지. 031-265-2118
김준영=모친 별세
潘炳逸=(자택)부산 수영구 남천2동 148 비치아파트 211동 701호. 051-611-6868

제 23 회

鄭源朝=지난 11월 12일 별세
金成珠=지난 11월 15일 부친 별세
朴守甲=동기회 회장. 부산노무사 소장. 051-465-4141.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27동 1002호
朴基旭=서면 삼오정 대표. 051-819-7555. (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金虎敬=성창기업(주) 총무부 이사. 051-260-3310
文明玉=송도 사천해물탕 대표. 051-255-9955. 부산 서구 암남동 353-5 송도임페리얼빌딩 6층
方庚夫=태원정밀(주) 대표이사. 011-882-0788
辛祥熙=성광프라(주) 대표이사. 051-322-8838
李秀白=동래 현대병원 원장. 051-553-6161
玉致範=옥치과 원장. 교대 국제신문회관 2층. 051-502-2580. (자택)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8동 1206호.
鄭容虎=삼화식품 대표. 051-263-4591
趙顯彪=메리놀병원 외과과장. 응급학과 실장. 051-465-8801
崔寅表=경동보일러 사하대리점 대표. 051-206-4343
陸炳天=제일은행 덕천동지점 지점장. 051-333-0081. (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사직동 597 사직한신아파트 103동 1701호
金東沃=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부산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2동 503호. 051-256-2513

제 24 회

金京男=동기회 회장. 동아공업사 대표. 051-326-9577
김무열=대한항공 국내선 차장. (자택이사)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 한양아파트. 051-525-1221
金鎭熙=(개원)한솔단과학원.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051-804-8932

제 29 회

權斗進=동기회 총무. (주)해찬건업 대표이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484 3층. 051-784-0213~4. 011-9530-8325

강추위에서도 맨발로 일어서라

새해 축시

꿈꾸는 날의 노래

김 대 식

풀잎 속에서
작은 바위틈에서 어느새
마음 속에 온통 얼음 같이
변해버린 세월 속에서
마음의 새로운 기쁨이 다가옵니다

진정 우리가 발견한 마음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강추위에서도 맨발로 일어서는
龍馬人의 꿋꿋한 마음은
아름다운 송이되어
말없이 찾아온
기쁨의 함성으로 들려옵니다

삶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게 하고
등불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수많은 대화들은
우리의 우정을 낳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긍정의 공간으로
떠오르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목소리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진솔한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습니다

꽃꽃마다 넘치는 한해를 위해
골골마다 흐르는 행복한 시대를 위해
힘줄 같은 龍馬의 사투리 억양들이
또 밝은 한해를 열고 있습니다

시인 김대식 동문(32회)은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이며, 일본 교토오타니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산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 동문은 한국문인협회회원과 부산문인협회 회원이다. 시집 '깍굴가에서 Ⅰ·Ⅱ' '기꺼이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매일 아침을 기다린다' 등을 펴냈다.

올해 본부 운영 방향 일정표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재경동창회 신년회	1월 16일(수)	잠실 롯데월드 호텔
(재)용마장학회 이사회(1차)	1월 22일(화)	대어초밥
용마대상 심사위원회 회의	2월 7일(목)	대어초밥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1차)	2월 7일(목)	대어초밥
경남고 제56회 졸업식	2월 15일(금)	경남고 체육관
경남중 제59회 졸업식	2월 16일(토)	경남중 체육관
본부동창회 결산이사회(1차)	2월 22일(금)	골든뷔페
경남고·경남중 입학식	3월 4일(월)	모교 체육관
본부동창회 제39차 정기총회	3월 8일(금)	코모도호텔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2차)	4월 18일(목)	대어초밥
졸업 40주년 모교방문행사	4월 20일(토)	경남고 국산기념관
기별대항 낚시대회(동창회장기쟁탈)	4월 하순	경남지역(민물낚시)
본부동창회 제2차 이사회	4월 26일(금)	코모도호텔
졸업 30주년 모교방문행사	4월 27일(토)	경남고 국산기념관
개교 제60주년 기념식	4월 29일(월)	경남고 체육관
졸업 20주년 모교방문행사	5월 4일(토)	경남고 국산기년관
마·창지역 및 울산지역 체육대회	5월 하순	
기별대항 등산대회(동창회장기쟁탈)	5월 하순	승학산~구덕산
기별대항 테니스대회(동창회장기쟁탈)	5월 하순	
기별대항 바둑대회(동창회장기 쟁탈)	6월 초순	중앙바둑센터(중앙동)
(재)용마장학회 이사회(2차)	7월 초순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3차)	7월 18일(목)	대어초밥
기별야구 대표자 회의	9월 6일(금)	골든뷔페
기별대항 골프대회(동창회장배 쟁탈)	9월 하순	부산근교 골프장
기별대항 야구대회(동창회장기 쟁탈)	9월29일~10월20일	경남중·고 야구장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4차)	11월 7일(목)	대어초밥
본부동창회 제3차 이사회	11월 15일(금)	코모도호텔
(재)용마장학회 이사회(3차)	11월 하순	
울산·마창지역 용마의 밤	12월 초·중순	
본부 2002년 용마의 밤 행사	12월 중순	
총무단회의	1, 4, 7, 9, 11월	

제16회 일육산우회 산꾼 20명 이 지난 1월 20일 아홉산에서 새해맞이 이순(耳順)을 맞은 산꾼들은 김길정 회장의 알뜰한 리드에 힘 입어 탈 없이 산행을 마치고 귀가길에 신년단합회를 벌였다.

새해맞이 산행 일육산악회, 아홉산에서 부인들 춤자랑 "원더풀"

한편 일육회는 지난 12월 2일 은동굴 ~ 범어사 코스의 금정산 산행을 끝내고 송년잔치를 펼쳤다(동문 12명·부인 5명 참석). 이날 송년회는 김길정 회장과 김찬문 부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노래자랑까지 곁들여져 흥겨움이 넘쳤고 부인들의 춤자랑이 스페셜 쇼로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본부 '용마의 밤' 협찬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4일 저녁 호텔롯데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2001용마의 밤' 축제를 빛내주기 위해 행운상품을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조대제(7회·본부회장)=대상 김치냉장고
△이규만(12회·재경회장)=특상 오디오 1대
△유흥수(11회·국회의원)=금상 비디오 1대
△정철기(13회·〃)=은상 비디오 1대
△정문화(13회·〃)=동상 제빵기 1대
△허태열(18회·〃)=30만원
△김형오(20회·〃)=30만원
△김무성(24회·〃)=30만원
△박종웅(25회·〃·이상 본부 명예부회장)=30만원
△부산광역시 용마회=10만원
△제7회재경동기회=10만원
△제12회동기회=커피메이커 2대
△이길미(14회·태성산업 대표이사)=골프화 1점
△하영철(18회·롯데상무)=콜라·사이다 500캔
△제19회동기회=주방그릇세트 1점
△황성진(19회·변호사)=20만원
△정용주(22회·진로 발렌타인스 영남본부장)=진로소주 20박스
△제25회=여행용 가방 2점
△전 풍(27회·두산 주류 부사장)=군주 20박스
△윤덕승(28회·OB맥주 부산지점장)=맥주 35박스
△권두진(29회·해찬건업 대표이사)=상품권 1장
△제30회=양주 1병
△제32회=CD카세트 1점
△제33회=상품권 1장
△제34회=승용차용품 1세트
△제37회=어린이완구 1세트
△제39회=가죽지갑 등
△제40회=트레이닝복 4점
△기타 각 동기회=5만원짜리 상품권 2장.

◆ 2002년 임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0회동기회 임원명단

회 장
전영대

부회장
김계순 최병도

이 사
강진평 고광수 김기호 김기훈
김대원 김동민 김선동 김인철
김임규 김철희 김한조 김현철
나하연 문창해 박야원 박영이
박완곤 박종문 박춘석 방봉우
배길순 변익규 서수현 서봉원
송남진 신대수 안금준 오강욱
윤봉희 윤부환 윤태헌 이강식
이병표 이봉원 이상화 이선형
이원홍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현수 임호웅 장명재 전병익
정승석 정종만 조길수 조상배
조용기 천진욱 최해만 하병용
한홍석 허 섭 허영오 홍기석

감 사
김용규 김종원

총 무
서정철